

## ‘다문화가정’ 용어에 내재된 차별과 편견에 관한 연구\*

조숙정  
(동아대학교)

1. 연구목적
2. 이론적 배경
  - 2.1. 한국의 다문화 개념
  - 2.2. 차별
  - 2.3. 선행연구
3. 연구방법
  - 3.1. 연구참여자 선정
  - 3.2. 자료수집 및 분석
4. 연구결과
  - 4.1. 구분과 분류 어휘: 한국에 산다는 자부심 부재
  - 4.2. 혜택과 지원의 필요약: 빈곤의 사회화
  - 4.3. 소수자 중심의 용어 선택: 낮은 어머니의 위치
  - 4.4. 비존중에 따른 소외감: 정서적 빈곤감 야기
5. 결론 및 제언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107011)

## Ⅰ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용어가 결혼이주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가 재정립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2020년 11월 15일부터 2021년 5월까지 대면, 비대면 인터뷰를 하였다. 참여자는 한국 거주 5년 이상으로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 17명을 표본 추출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R 프로그래밍으로 텍스트 분석을 하고,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용어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첫째, 구분과 분류 어휘로 한국에 산다는 자부심 부재 둘째, 빈곤의 사회화로 혜택과 지원의 필요악 셋째, 소수자 중심의 용어 선택으로 낮은 어머니의 위치 넷째, 비 존중에 따른 소외감으로 정서적 빈곤감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제시한다. 먼저 외국인과 혼인한 가정에 대한 용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와 ‘다문화가정’ 용어가 구분될 수 있도록 용어 사용을 정확히 해야 한다. 셋째, 정부가 정책용어를 선정할 때 용어의 차별성을 배제하고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다문화, 다문화가정, 차별, 편견, 구분, 다문화용어, 편견용어

### 1. 연구목적

한국 사회는 1980년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시작으로 결혼이주여성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현재는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하여 유학생, 외국인노동자, 해외동포 유입 및 각계의 전문인력 등 다양한 외국인이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초기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수립되어, 다양한 외국인이 유입된 현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정책의 기초는 초기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 중심의 다문화가족정책과 다르게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2008년부터 5년마다 수립되는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2018년 제3차 다문

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 정책과제 중 ‘상호 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가 ‘다문화 수용성과 감수성’이란 주제로 활발하게 시행되었다(여성가족부 2018). 또 다른 방면에서는 2014년 제정된 ‘문화다양성 보호와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문화 다양성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두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다문화 가족’ 용어와 ‘다문화’ 용어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3차 다문화가족정책에 따라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와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다음사업강사’를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과 심화 교육에서 다양한 문화 및 상호문화 존중에 관한 교육을 하였다. 이 교육을 받은, 강사로 활동 중인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 가족’의 개념에 주목하게 되었다. 다문화의 사전적 의미는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의 문화가 혼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네이버 국어사전). 다문화주의는 “기본적으로 한 사회 내의 모든 인종, 민족집단들이 문화적 차이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정치와 공동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유정석 2003: 14-15; 강휘원 2006: 10-12; 윤인진 2008: 73). 다문화 가족이 다양한 문화가 만나 이룬 가정이라면, 아시아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인 이룬 가정만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결혼이주여성들은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는 다양한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의 등장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노출이 빈번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외국인의 다양한 삶과 그들을 대하는 한국인의 태도에서 ‘다름’을 인지하게 되었다.

“다문화라고 하면 서로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 결혼해도 다문화인데 왜 우리만 ‘다문화’라고 한정하며 다른 시선으로 보면서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 복지시혜의 대상으로 낙인찍는지 모르겠다”(김정희 2019: 49)고 다문화 가족 용어의 차별성을 결혼이주여성 스스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다양성 적용에 따른 다문화정책 발전방안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다문화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주민을 포용하는 다문화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주민을 다문화로 구별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우리’라는 범주 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김용국·김소희·김성하 2017). 그리고 한국의 문화다양성 시작점이 “이민자,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의 유입 가속화로 급속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경험”에서 비롯되어(류정아 2015: 10), 일반적인 다양한 문화보다, 외국인의 유입과 관련하여 문화다양성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 용어가 다문화 가족 용어와 동행하게 되었고, 정책적인 측면의 다문화가정과 문화적인 측면의 다문화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용어가 혼재하는 상황이다. 또한 다문화 가족이나 그 가정을 일반적으로 ‘다문화’라고 줄여서 부르면서 다문화 용어는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의 대상이 결혼이주여성, 특히 그중에서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으로, 다문화는 전체를 아우르기보다는 부분적인 용어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결혼이주여성이 포함된’, ‘동남아의 가난한 국가에서 온’, ‘복지시혜의 대상자’라는 의미가 내재해 있으며, ‘동남아의 가난한 국가에서 온 여성’이라는 프레임은 한국의 국제결혼 초기부터 다문화가정을 인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역사도 20여 년에 접어들면서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이들 여성은 ‘다문화가정을 대하는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동안 사용되던 ‘다문화’ 용어의 부정적 요소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화다양성에서 언급하는 ‘다문화’와 다문화가정의 ‘다문화’ 용어가 구분 없이 사용되고, 특수집단에만 다문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인한 차별성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문화가정의 여성과 그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한국 사회에서 차별이 내재한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면 다문화가정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건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재정의가 요구되며, 이미 부정적인 인식이 심한 이 용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형성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용어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활동을 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여 ‘다문화가정 용어’로 인한 문제점과 특이사항을 찾아내고 다문화가정 용어에 내재한 본질적 측면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다문화가정 용어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실제적인 방안을 밝히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한국의 다문화 개념

현재 한국에는 ‘다문화’와 ‘문화다양성’이 엄격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다문화’도 ‘문화다양성’과 같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의미하는 용어이지만, ‘다문화’는 다문화가정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통해 국내 적응과 정착을 돕는 ‘사회통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문화다양성’은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 뿐 아니라 나이, 성별(젠더), 장애, 성적 지향 등의 정체성에 따른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까지 포괄하고 있다. 즉,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이 다양한 문화를 표현하고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

홍기원(2009: 180)은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 전개되었다고 밝혔다.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정책을 다인종, 다민족정책과 관련한 정책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정책은 문화정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화사적인 측면에 관한 정책으로 혼동하여 다문화정책, 문화다양성정책, 문화정책 등으로 임의로 차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해경(2014: 145)은 현재의 결혼이주여성에 치우친 다문화 연구를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다원주의에 관한 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이 중심이 된 가족을 다문화가정이라고

칭하게 되어, 이들에 관한 연구가 마치 다문화에 관한 연구인 것처럼 팽배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다문화’에 대한 개념 정의가 정책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용되면서 용어로 인한 갈등이 빚어진 결과이다.

2012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국내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51.17점으로 낮게 나타나면서(여성가족부 2012) 정부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할 당시 재한 외국인이 약 160만 명을 넘었고, 이 중 결혼이주여성은 12만 명을 넘었다(법무부 2022).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의 국제결혼으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였으며, 정부는 다문화가정을 사회적 소수자로 보고 다문화가정(족)이라는 정책용어를 만들어 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가정폭력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다양성 용인 수준이 25.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같은 해 제62차 ‘UN 사회권규약위원회 국가보고서’심의에서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한국은 다문화주의 수용도가 낮고, 문화다양성 제고 정책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문화다양성 가치에 관한 국민인식 제고 및 관련 정책과 수단의 효과성을 모니터링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8).<sup>1)</sup>

이와 같은 권고를 받은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했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정책과제로 두고 ‘다문화 수용성과 감수성’교육을 시행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정부는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해, 공공정책의 일부인 다문화가정을 문화정책

1) 2022년 3월 31일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 발표를 하였다. 2018년과 2021년에 각각 조사한 결과를 비교한 도표에 의하면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보다 2021년에 <-0.54점>으로 오히려 낮아졌다.

의 영역인 문화다양성 영역으로 확대해 교육하면서 ‘다문화가정’과 ‘다문화’ 용어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 것이다.

### 2.1.1.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 다문화 용어

다문화 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출생·인지·귀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출생·인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출생·인지·귀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뜻하는 용어로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법적으로 규정된 용어이다.<sup>2)</sup>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문화 가족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계기는 2003년 건강시민연대가 ‘국제결혼 가족’을 ‘다문화 가족’, ‘혼혈아’를 ‘다문화 가족 2세’라고 명명할 것을 제안하고 ‘세계가정의 해’ 10주년 행사에 건강한 가정을 위해 개선해야 할 용어에 포함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설명이다. 이후 2006년 4월에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대책’, 과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지원방안’에서 ‘다문화 인권 국가 구현, 다문화사회 실현, 다문화 교육, 다문화 감수성 향상’ 등의 용어로 ‘다문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6년 5월 ‘다

구분	수용성 (점)	하위구성요소별(점)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고정 관념 및 차별	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 회피 정서	교류 행동 의지	이중적 평가	세계 시민 행동 의지
2018(A)	52.81	49.34	48.78	62.58	45.69	64.46	42.48	48.25	58.13
2021(B)	52.27	48.04	49.20	63.42	48.53	63.86	38.76	48.89	54.11
A-B 접수차	-0.54	-1.3	0.42	0.84	2.84	-0.6	-3.72	0.64	-4.02

-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1.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2007년 6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2008년 10월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방안’ 등으로 ‘다문화가정’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이 용어를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구본규 2015:12~13).

2008년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다문화 가족’과 ‘다문화가정’ 용어는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2006년부터 운영되던 ‘결혼이민자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9년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가 그동안 운영되던 ‘외국인 정책위원회’와 별도로 운영되면서 다문화 가족 용어는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가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라 실시되고, 통계청에서 2011년부터 인구동향 조사에 ‘다문화 인구동태통계’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다문화 가족’ 또는 ‘다문화가정’ 용어는 대중적인 용어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조사로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가정’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서, ‘다문화 교육, 다문화상담, 다문화 소통, 다문화 연구’ 등으로 ‘다문화는 이주민’ 특히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으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하는 공식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문화 가족 정책’은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외국인’과는 다르게, 특정 출신 국가의 결혼이민자를 포함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다문화’는 이들을 대표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다문화 가족정책은 “이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주변인으로 남지 않고 평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민가영 2011: 84).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정책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문화 가족지원법에서 그 범위를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로 한정하고, 정부 주요 부처에서 ‘다문화 가족’이나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를 ‘다문화’로 사용하게 되면서 ‘다문화’는 이들 가족을 대표하는 단어가 되었다. 2010년 이후 문화다양성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이전까지 한국인에게 ‘다문화’는 ‘결혼이주여성이 포함된 가정’으로 고착되었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2021년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에

서도 “선주민과 다문화 가족 간의 교류 기회를 늘리기 위해 교류·소통 공간(80개소)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 기간을 확대하는 등 다문화 친화 활동을 활성화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서도 여전히 다문화 용어는 다문화 가족과 결혼이민자가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1.2 다양한 문화 측면에서 본 다문화 용어

한국은 인구학적으로는 다양성을 갖추고 있지만, 문화적으로도 다양성을 갖추었는지는 의문이다.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새로운 자원을 인식하고 이것을 한국사회의 동력으로 만드는 ‘문화의 융합’이 중요하다.

한국이 인식하는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 내에 다양한 인종, 민족 간의 문화를 서로 인정, 존중, 공존을 지향함과 동시에 이들이 자신들이 속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의는 서구 다문화국가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한국의 다문화 화와 다른 측면이 있다.

물론 다문화가정 외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동포, 전문가 등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다문화는 다문화가정으로 한정한다.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경우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혼인한 후에 한국 국민이 되는 것이며, 또한 그들의 자녀들이 한국의 미래세대가 된다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 이에 정부는 다문화가족 및 그 자녀와 미래 한국을 위해 다문화 수용성과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인지하였다.

다문화 수용성과 감수성 교육은 다문화 가족을 다양한 문화가 있는 가족으로 개념 정의를 하였다. 결혼이주여성 출신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들은 학교와 기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게 하는 활동을 통해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였다. 이렇게 다문화는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가족’이 되었고 다문화가정은 다문화의 대표성을 가지게 되었다.

정책적 용어의 다문화가정이 문화다양성의 다문화로 해석되면서 사람으로 구성된 가정을 문화로 표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보다는 다문화로 줄여서 표현하게 되면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문화가 되었다. 이에 결혼이주여성들은 사람을 문화로 부르는 것은 인권침해이며, 존중과 인정이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라는 용어 뒤에 숨은 '배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문화다양성의 아주 일부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왜곡과 확대해석으로 다문화가정은 다양한 문화라는 해석 아래 사회적 소수자로 취급당하고 있다.

## 2.2. 차별

차별은 차별을 행하는 사회의 역사적·문화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어느 사회에나 존재한다. 인종과 문화에 대한 차별뿐 아니라 권력에 따른 차별, 경제적 차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차별 역시 사회적 불안으로 인한 인종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 이후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노동자들의 급격한 유입으로 새로운 이웃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와 다른 인종과 민족, 종교에 대해 받아들이는 시간이 부족하였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국 가족으로 유입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쟁점화되기도 하는 등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차별적인 요소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에 이르러 차별행위는 더욱 미묘하게 행해지고 있어서 '차별을 당한 사람들의 관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차별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더욱이 차별적 행태로 판단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차별피해자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다(조민지·임업 2017: 51).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인지하는 차별 수준(perceived discrimination)은 당사자가 해당 상황을 차별이라고 인지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Beiser et al. 1999; Blank et al. 2004; 신은경·곽지영 2015: 272). 즉, 차별행위가 실재하는지보다는 차별피해자의 입

장을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인지된 차별 수준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은 차별이 단순히 개인 사이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조민지 외 2017: 51). 차별 가해자는 차별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별피해자가 차별이라고 느낀다면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차별은 “권력을 가진 집단이 권력을 갖지 못한 집단에 대해 비합리적인 사회적 기회와 각종 혜택에서 배제하는 등 정당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Antonovsky 1960; Krieger 2000; 조민지·임업 2017: 51). 특히 차별적 명칭의 대상은 이른바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수자 집단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불평등하게 차별받고, 대우받는 사람들을 가리킨다(조홍중·전리상 2017: 15). 이러한 차별과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은 차별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사회적·역사적 맥락과 관련이 있으며, 이 차별어에 대해 차별피해자의 인지 여부가 관건(송영빈 2019: 91)이라고 본다. 마침, 김정희(2019)의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들 또한 ‘다문화가정’ 용어에 대한 차별인식을 가지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한 동남아 출신 여성이 배경인 경우는 ‘다문화가정’이라고 하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경우는 다문화가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점을 결혼이주여성 스스로 말하고 있는 점이다.

한 사회의 소수집단 구성원들이 자신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각할 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커진다(정하나 2016: 88). 한국의 경우 이러한 갈등은 지역, 성별, 세대 등으로 국한되어 왔으나 차츰 인종적인 차별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개인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차별을 초래하게 된다(정하나 2015: 71).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이를 결혼이주여성들의 탓으로 여기고, 이들을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이기 때문에 다문화 수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엇보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태도 형성에 감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차별과 편견이다. 피부색의 차이에 따른 인종이라는 작위적인 차별의 분류체계에서 볼 수 있듯이 차별의 출발점은 차이

이다. 이 ‘차이’가 ‘차별’로 환기되는 것은, 그것이 위계성을 띠는 경우이다. 즉, 서열에서 낮은 위치를 차지하는 집단은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면서, 이들을 배제,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정하나 2016: 88).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면서 이러한 차별은 무의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본다. 차별은 차별당사자가 차별이라고 인지하면 차별이 된다.

### 2.3. 선행연구

다문화 관련 용어에 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2010년대 초반에 다문화 용어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다문화라는 용어가 다문화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기 전에 정부 기관 중심의 정책 편의주의에 따라 사용되기 시작하여, 현재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그리고 2015년을 전후로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로 분류되며 강제적으로 방과 후 교육에 참여하는 등 분리를 통한 차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꾸준히 다문화 용어에 따른 분리와 차별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다문화 용어와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서종남(2010)은 다문화와 관련된 7개의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현황을 고찰하고 이들 용어의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사용이 향후 한국 다문화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심양섭·김지영(2016) 또한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개념 정의 없이 다문화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된 점과 다문화 용어를 사용한 정책의 상당 부분이 내용상 중복과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대거 유입된 초기에 정리되지 않은 정책용어의 일관성을 요구한 것으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 장한업(2011)은 이민자의 아이들과 관련된 용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하고 한국 교육의 맥락에서 ‘다문화 가족’과 ‘다문화 교육’이라는 용어의 적합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미국에서 개발된 문화적 측면의 다문화 교육을, 한국에서 이주민 자녀를 위한 다문화 교육으로 사용하여 용어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다문화 관련 용어를 한국의 환경에 맞도록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최대희(2018)의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가 드러나 있는데, 초등학교 교재에 다문화가정 자녀가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되는 근거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한국인 친구들로부터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였고, 교과서에서는 다문화가정이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받는 사회적 약자로 그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다문화가정과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용어는 초등학교 때부터 차별과 배제로 인식되는 용어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바이다.

김선미 (2011) 또한 ‘다문화가정’이라는 명칭에 관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오히려 이 용어가 다문화를 이해하는 문화정책을 추진하는데 개념상의 혼동을 가져와 다문화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다문화 용어가 다문화정책과 문화다양성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이 야기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김효선(2015)의 논문이 주목할 만하다. 다문화 강사 활동을 하는 3명의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다문화의 개념과 다문화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3명의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에서 그 용어가 오·남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주여성들은 다문화라는 용어가 다문화 가족으로 잘못 사용되면서 낙인효과까지 낳았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본 연구와 어느 측면에서 맥락을 같이하고 있지만, 용어적인 측면보다는 다문화 이해 교육의 필요성과 문화간 이해 교육을 넘어서 평생교육과 세계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다문화 용어가 오·남용되고 있으며 낙인효과까지 있다는 연구결과는 중요한 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더 많은 표본을 가지고 다문화 용어에 담긴 부정적인 측면을 파악하

고, 다문화 용어의 재정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문화사회에서 차별 문제를 다룬 연구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다수에 속하는 구성원들이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이며, 둘째는 소수에 속하는 이주민 스스로가 체감한 차별 수준에 관한 연구이다. 그러나 차별대상자인 소수집단을 배제하게 됨으로써 차별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차별행태와 이에 대한 저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차별을 실제로 인지하게 되는 집단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차별행위를 하는 것은 차별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상호작용과정을 담고 있다. 차별행위를 하게 되는 다수 집단의 구성원 인식과 함께 차별의 피해자가 경험한 차별행위들을 명확하게 파악해야만 차별행위의 본질적인 차원에 접근할 수 있다(박건 2010: 286). 물론 다문화사회에서 차별 문제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 사회적으로 다수에 속하는 개인과 소수에 속하는 개인의 두 가지 관점을 통합적으로 취급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차별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이 무엇이 차별이다, 어떤 점에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면 차별을 거론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이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을 사용하여 이론적으로 적합한 참여자를 표집하였다. 전체 참여자는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 사회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자녀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거주 년을 5년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습득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어느 정도 한국 사회에 노출되어 여러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자녀가 있는 여성으로 기준을 잡은

것 또한 자녀의 유무가 가족과 사회 등 다양한 집단과 더 많은 접촉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사회적인 요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참여자는 모두 17명으로 중국과 필리핀이 각 3명,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우즈베키스탄이 각 2명이고 페루, 태국, 인도네시아 출신이 각 1명이다. 참여자 중 5~10년 이내는 4명, 10년~20년 이내가 7명, 20년 이상 거주자가 6명으로 구성되었다.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참여자는 3명이고 대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참여자는 6명, 나머지 8명은 초·중·고등학생을 둔 참여자들이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이름	국적	한국거주	자녀	직업	인터뷰형태
1	A	일본	30	2	협동조합운영	대면, SNS
2	B	중국	26	1	가족센터근무 외국인주민대표	대면, 전화
3	C	중국	25	2	다문화이해교육강사	대면, 전화
4	D	태국	25	2	사업	대면, 전화
5	E	일본	24	4	아르바이트 외국인주민대표	대면, SNS
6	F	페루	23	2	아르바이트	대면
7	G	캄보디아	15	2	사업	대면
8	H	중국	15	1	주부	대면
9	I	필리핀	14	2	외국어강사	대면, ZOOM
10	J	베트남	13	2	통역	대면, ZOOM
11	K	베트남	12	3	가족센터근무	대면
12	L	캄보디아	11	2	커피숍근무	대면
13	M	필리핀	11	2	아르바이트	대면
14	N	필리핀	7	1	공장	대면
15	O	우즈베키스탄	7	2	회사	WEBEX, 전화
16	P	인도네시아	6	1	주부	대면, WEBEX
17	Q	우즈베키스탄	5	2	아르바이트	WEBEX, 전화

### 3.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대면, 비대면으로 인터뷰하였다. 대면 인터뷰는 연구자가 운영하는 센터와 스터디카페를 이용하였으며, 1회당 인터뷰 시간은 3~4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비대면 인터뷰는 ZOOM 또는 WEBEX를 이용해 진행되었으며 1회당 2~3시간 정도 걸렸다. 인터뷰 이후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로 추가 인터뷰하였다. 연구참여자 한 명당 1.5회 정도로 인터뷰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모두 17명으로 초기 자료수집을 위해 각 국가별(베트남,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페루, 캄보디아) 1명으로 총 7명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하였다. 반 구조화된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도록 하여 인터뷰의 범주를 마련하였다.

이후 핵심범주와 분석에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적합한 표본을 찾아 17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였다. 초기 인터뷰어(interviewer) 중에서도 본 연구의 취지와 맞지 않는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또한 이전 참여자들의 분석 내용이 이후 참여자들에게도 반영되는지 분석하기 위해 비교 질문을 계속 하였다. 10명 정도 실시하였을 때 다문화사회 이해강사활동, 외국인 주민대표 등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참여자와 사회·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참여자 간에 확연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였다. 또 인터뷰 내용에도 차이가 있어, 이후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참여자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16명 정도 인터뷰하였을 때 새로운 내용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17명으로 인터뷰를 종료하였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정확하고 다양한 어휘로 표현되지 않은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다문화’ 용어가 ‘다문화가정’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언급된 ‘다문화’는 문맥에 따라 ‘다문화가정’을 지칭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본 연구는 17명의 인터뷰 자료를 녹취하여 R 프로그래밍으로 텍스트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다. 빈도수가 높은 어휘와 편견과 차별을 전제로 한 어휘를 묶어서 다문화가정(다문화) 용어에 내재된 편견과 차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 4.1. 구분과 분류 어휘: 한국에 산다는 자부심 부재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이 구사한 어휘에는 이주민으로서 한국에 산다는 자랑스러움과 자부심 등을 나타내는 어휘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다문화(300회), 사람(153회), 가정(109회), 한국(75회), 한국사람(74회), 다문화가족(73회)’과 ‘외국·외국인(84회), 한국가정(16회), 한국남자(13회), 한국인(8회)’ 그리고 ‘국적(15회) 등의 어휘사용을 통해 참여자들은 한국인으로 구성된 한국 가정과 이주민이 포함된 다문화가정을 구분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분은 한국인들이 다문화를 구분하고 다문화가정을 한국 가정과 다르게 보는 시각으로 차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별인식을 통해 참여자들은 한국인이 될 수 없으며, 한국 사회는 자신들을 한국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보는 등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지지 못하였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들을 수 있게 구별할 수 있게 하는 명칭이다. 다문화는 외국인이잖아요. 한국인 중에 외국인. 다문화라면 좀 다운되고 못산다,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안 좋게 불려요. 다문화라고 부르면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국적 받아야지 생각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얼굴보고 다문화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국적 있어도 소용없어요.”(참여자 B, F, G, M)

참여자 F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귀화하였다. 남편의 사업이 잘되고 좋은 아파트에 거주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 ‘사모님’이라고 부르며 반겨주었지만, 남편 사업이 망하고 작은 주택으로 세 들어간 이후에는 ‘다문화’가 되었다고 한다. 사람은 똑같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니 더이상 한국인들과 교류가 되지 않았고, 다문화 관련 기관에서 만난 결혼이주여성들과 교류하며 지내고 있다. 참여자 M은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한다.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착용하면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다문화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가지지 않기 때

문에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어 더 편하다는 것이다. 참여자 G는 스스로 외국인이라고 불렀다. 귀화해서 한국인이지만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고 자신을 구분했다.

“TV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썸의 가족도 다문화 가족이지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혜택도 받지 않을 것이다. 또한 유명 축구선수도 외국인 아내를 둔 다문화 가족이지만 매스컴에서는 그들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고 ‘글로벌 가족’, ‘국제결혼 가족’으로 표현하고 있다. 같이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캐나다 사람이 있는데 다문화가정과 느낌도 다르고 안 맞는 것 같다. 동남아에서 온 아내가 있는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라고 하면 좀 다운되고 못 산다, 가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돈 때문에 한국에 온 것 같다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다문화라고 부르면 기분이 안 좋으며, 미국은 하이, 아세안은 다운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참여자 B, G, M, P)

참여자 B는 다문화라고 불리면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든다고 했다. 이미 다문화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굳이 글로벌 가족이나 국제결혼 가족이라고 구분하여 부르는 것은 다문화가정과 다르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결국 한국은 가난한 나라 출신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다문화라고 부르고 있어, 다문화 용어 자체가 구분이며, 차별이다.

“언제까지 한국에서 이런 이상한 단어를 붙일 것인지 정말 답답해요. 왜 사람을 다문화라고 부릅니까? 진짜 불쾌하다. 문화는 문화일 뿐이지 외국에서 왔다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며, 한국 사람들과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다는 명확한 한국인 우월주의다.”(참여자 B, C, E, N, Q)

“저는 국적을 뺐어요. 그래서 한국인이라고 해도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물어봐요. 그리고는 ‘다문화네 뭐’ 이렇게 말해요.”(참여자 B, J)

참여자들은 ‘우리’라는 어휘를 81회 사용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모두’를 나타내는 우리가 아니라 참여자들과 같은 ‘결혼이주여성들’

을 나타내는 우리로 사용되고 있다. 참여자들은 우리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지만, 자신들을 철저하게 한국인과 구분하고 있었으며, 이는 한국 사회가 자신들을 다문화로 구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특히, 같은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혼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여성과 혼인한 가정은 다문화가정, 백인과 혼인한 가정은 글로벌 가족 또는 국제결혼 가족으로 불리, 명백하게 다르게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국제교류재단에는 외국인 부부 가정이 있어요. 외국인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눌 때는 저보고 말하지 말라고 해요. 다문화가정은 한국 남편과 가족이 있고,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한국 가족이라고 선을 그어요. 결혼이주여성들은 여기서도 또 분리돼요. 한국인 가정도 외국인 가정도 아닌 소속감이 모호하여 어디에서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어요.”(참여자 B)

“센터에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했어요. 그런데 다문화는 안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한국 가정만 들을 수 있고 다문화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신청하라고 했어요.”(참여자 C, K)

소속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이다. 한국에 거주한 지 25년이 되는 참여자 C는 24년 전에 귀화한 중국 동포(조선족)다. 그러나 한국 가정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거절당하였다. 참여자 K 또한 귀화한 베트남인이다. 이들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대상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도록 하는 것 또한 이들이 한국에서 한국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갈라치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참여자 B 역시 26년 전 한국에 왔고 오자마자 귀화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다문화가정이고 다문화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 전형으로 대학에도 진학하여 졸업하였다. 그리고 한국인 친구나 이웃보다 고향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이나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한국에 대한 소속감과 만족감을 주지 않는 현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한국에

거주한다는 자부심을 지니기 어렵다. 이는 한국 사회가 외국인에게 소속감과 자부심을 지니도록 하지 않고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하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 4.2. 혜택과 지원의 필요악: 빈곤의 사회화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가난’은 가장 큰 차별의 요인 중 하나라고 말한다. 특히 다문화 가족 뒤에 수반되는 ‘지원’은 다문화 가족이 가난하다는 인식을 사회화하고 있고 참여자들은 이 사회적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을 ‘다문화가정’이라고 명명하고, 지원센터가 생기면서 한국인들은 다문화가정에 부여되는 혜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다문화가정 용어는 자연스럽게 지원과 혜택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집단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인터뷰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지원(72회), 혜택(21회), 필요(19회) 도움(10회)과 나라·국가(49회), 센터(41회) 등의 어휘를 통해 한국인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해 가장 먼저 인식하는 것이 가난이라고 생각하였다. 정책과 제도로써 지원하고 보호하는 대상으로 사회화되었다는 것이다.

“초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기고 설문조사를 많이 했어요. 설문조사는 다문화 가족은 취약계층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처럼, 다문화 가족은 힘들니까 도와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있었어요. 재산이 얼마나, 남편이 폭행하느냐 이런 아주 부정적인 것을 물었어요. 나쁜 가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참여자 A, B, D)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요해요. 지원센터라고 하니까 다문화가정은 지원해 주는 불쌍한 집이구나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를 불쌍하게 봐요.”(참여자 D, O, L)

참여자들이 초기 다문화 가족 관련 설문조사에서부터 ‘다문화는 지원 대상’이라고 단정한 것으로 보았다. 설문조사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오히려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고 다문화 가족의 실태를 알 수 있었고,

이것 때문에 한국 정부가 지원센터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과 혜택은 ‘가난’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으며, 다문화가정은 가난하다는 통념이 생겼다고 한다. 참여자 A는 처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겼다고 했을 때 한국은 외국인을 특별히 배려해 주는 고마운 나라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설문조사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국가에서 센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주변의 결혼이주여성들끼리도 다문화가정에 대해 설문 문항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었다고 한다.

“다문화로 불리기 전에는 동사무소나 문화센터에서 한국인들과 같이 배우고 차도 마시고 했어요. 우리끼리 모이는 것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다문화라고 부르면서 매번 우리끼리만 있어요. 우리끼리 다문화센터에 모여서 다문화를 알아달라고 해요.”(참여자 B, C, D)

또한 센터가 생기기 이전에는 한국인들과 교류가 많았지만, 센터가 생긴 이후에는 센터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들만 모이게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한국인들과 교류는 점점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만약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생기고 다문화가 고급문화로 인식되었다면 한국인들은 다문화 가족에 대해 다르게 대했을 수도 있지만, 다문화가정이 빈곤의 프레임 을 갖게 된 이상 한국인들은 다문화 가족에 관심이 없다.

“다문화니까 여기는 안 돼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가보세요. 다문화 프로그램에는 한국 사람이 없어요. 매번 우리끼리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요.”(참여자 A,B,F,L)

참여자 L이 알고 있는 한국인은 가족들과 센터 선생님뿐이라고 한다. 센터 관계자 외의 한국인을 만난 적이 별로 없으며, 센터에서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할 때 연락이 오지만 먼저 연락을 할 만한 한국인은 없다고 한다. 참여자 H는 자신이 한국 사람을 모르는 것처럼 한국 사람도 다문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서 잘 모를 것이

라고 한다. 그렇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문화는 가난하다고 정해버린 것 같다고 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는 의식이 한국인 저변에 깔려 있어서 ‘다문화 가족지원’이라는 간판이 전국에 내걸리면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과 혜택이 자신들을 빈곤 프레임 안에 가두고 사회적 배려집단으로 낙인찍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우리는 다문화 가족이라 부르잖아요. 그런데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여자들은 우리랑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다문화가정이라고 안 하잖아요. 시장에 가면 우리한테는 말 많이 걸어요. 남편이 잘해주냐, 돈은 많이 버냐, 한국 음식은 잘하냐. 그런데 백인 여자들한테도 이런 말 물어볼까요? 아닐 거예요.” (참여자 I, M, S)

참여자들은 ‘서구권 배우자’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가정에 대해 ‘다문화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은 ‘가난한 한국 남자와, 가난한 나라에서 시집온 여자가 이룬 가정으로 정부의 지원과 혜택이 필요한 가족’이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또는 더욱 심하게 ‘다문화’라고 부른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지원정책 또한 이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열등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한국 남편을 만났다는 점, 이들이 발전도상국의 가난한 국가 출신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다문화니까, 다문화라서” 등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과 혜택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 괜찮아요. 한국어 배울 수 있고, 모임을 할 수 있어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에서 만나요. 다문화센터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보다 지원이나 혜택 많이 없어졌어요. 처음 한국에 오면 다문화 지원받아야 해요. 아니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참여자 C, F, S)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긴 후에 설문조사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조사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온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고마운 나라라고 생각했어요.”(참여자 A)

정책적으로 다문화 가족이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많은 다문화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며,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요구되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결혼이주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관이다. 특히 한국어와 한국문화 적응 교육 및 자녀교육과 가족 상담 등은 초기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장학금, 생계비 지원 등의 사회 각계의 활동도 ‘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 측면이 있다. ‘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가 없더라도 지원과 혜택이 유지된다면 이 용어가 불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문화 가족’ 용어는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참여자 E는 다문화 가족지원이 초기와 같지 않다고 한다. 한국의 지원정책은 경제적 빈곤 계층을 중심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해 주는 것이지, 다문화 가족이라고 모두 지원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참여자 E는 자녀가 4명이고 이에 따라 다자녀가정 혜택은 받고 있지만, 그 외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다문화 가족이 한국 가정과 달리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으며,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지원과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과 혜택은 이들에게 차별이나 편견을 안겨 주는 것은 문제이지만, 다문화 가족의 생활 유지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 지원과 혜택이 필요하다는 참여자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지원과 혜택이 한국인들이 불만을 가질 만큼, 또는 다문화 가족이 충분하다고 할 만큼도 아니지만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과 혜택은 빈곤의 사회화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 4.3. 소수자 중심의 용어 선택: 낮은 어머니의 위치

현재 다문화가정 용어는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가 이룬 가정을

말한다. 한국인 남편과 원가족 사이에서 한국인 자녀를 낳아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엄마가 아시아 여성이라고 다른 가족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이 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고 부르고 자녀들을 다문화가정 자녀로 부르고 있다. 참여자들은 자녀는 명백히 한국 사람인데, 아버지를 기준으로 한국인 국적을 주면서 생활에서는 엄마를 기준으로 사회적 소수자 취급을 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엄마’를 37회, ‘때문’을 (33회) 구사하면서 ‘엄마 때문’이라는 강한 자책감을 드러냈다. 또 ‘차별(24회), 인정(16회), 분리(10회), 구분(9회), 무시(8회), 시선(8회)’ 등의 어휘에서 한국 사회에서 자녀들과 가족들이 겪고 있는 차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림-2>에서 나타난 것처럼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냥, 때문에, 다문화라고’ 등의 빈도수가 높은 어휘들은 ‘다문화 용어’에 내재한 편견과 차별에 대해 저항하지 못하는 무기력함과 소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엄마 때문에 다문화 애라고 말해요. 나한테 다문화라고 부르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애들한테는 기분이 조금 아파요. 엄마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엄마가 외국인이니깐 다문화 가족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국적을 준 거잖아요. 또 한국 사람들이 괜히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편견’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애들을 특별하게 모아서 구분하고, 모이게 하는 것은 아이들이 정말 싫어해요. 학교에서 구분하면 사회에서도 구분하고 다문화 가족 자녀들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주나요? 그런 세상은 없는데 자꾸 구분하면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참여자 B, C, E, G, M, N, O)

참여자 M은 자녀의 눈치를 볼 때가 있다고 한다. 일반 한국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자신 때문에 겪고 있어서 한국으로 괜히 왔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자신이 잘못된 것은 없지만 자신 때문에 불이익을 겪는 가족들을 보면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다. 한국인이 동남아인에 대한 차별이 이렇게 심할 줄 생각 못 했으며, 자녀들까지 동남아인 취급을 할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참여자 E의 자녀는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것이 학교에 알려진 뒤부터 학교 가는 것을 싫어했다고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잘못이 없는데도 뭔가 잘못하고 있는 느낌을 받게 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등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한다.

참여자 O의 자녀는 할머니와 생활한다고 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던 자녀가 어느 날 엄마가 싫다고 할머니랑 살겠다고 말하며 할머니가 어린이집에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엄마가 왜 싫은지 아이가 말하지 않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어린이집에 오지 말라는 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짐작을 할 뿐이다. 참여자 O는 아직 어린 자녀의 눈치를 살피다 보니 사람들 앞에서 괜히 주눅 드는 등 자신감이 점점 없어진다고 한다.

“저 때문에 다문화 됐어요. 가족들 앞에서 다문화로 불릴 때 부끄러워요. 제가 시집오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한국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도 남편도 다문화가 되었어요. 뉴스에서 다문화 문제가 생기면 가족들이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 혼자만 외국인일 뿐인데 한국 가정이 아니고 다문화가정이 되고 우리를 불쌍하게 봐요.”(참여자 I, M, N, L)

참여자 L은 다문화라는 소리만 들어도 싫다고 한다. 시어머니 친구들이 이 집은 다문화인데 뭐 받은 거 없냐, 무엇을 받았냐 등 다문화는 받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었다고 한다. 시부모님이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냥 웃고 계신 데 괜히 자신 때문인 것 같아서 부끄러웠다고 한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왜 다문화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다. 다문화 아이들을 따로 공부시키던 때가 있었다. 아이가 집에 와서 왜 우리만 따로 부르는지 부끄럽고, 친구들이 이제 엄마가 외국인인 걸 알게 되었다고 화를 냈다.” (참여자 D, E)

참여자 E의 자녀는 외모상으로 한국 아이들과 같이 생겼다. 중학생이 될 때까지 친구들은 엄마가 외국인인지 몰랐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엄마가 외국인인 사람 다 모여라, 다문화 다 모이라고 하면서 친구들 앞에서 원숭이가 된 것 같았다고 짜증을 냈다고 한다. 그리고 이상

한 것을 묻는 친구들이나 불편한 친구들은 만나지 않다 보니 친구들도 많이 없어졌다고 한다.

“아이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도 아무 말 못 했어요. 누가 다문화 사람 말을 믿어요? 안 믿어줄 거예요.”(참여자 K, M)

“목욕탕에서 아줌마가 저를 혼냈어요. 고모가 아무 말 안 하고 밖에 나가자고 했어요. 저 때문에 고모는 피했어요.”(참여자 M)

“남편은 친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랑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 남편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지 않아요. 지금 아주 친한 친구 한 명만 만나고 있어요.”(참여자 I)

참여자 I는 남편이 유학을 와서 참여자 I의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 만나 결혼을 하였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남편은 정규직 직업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외국 여성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친구집단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참여자 I는 자신 때문에 남편이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다. 참여자 K와 M은 다문화는 참아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사과하고 자리를 떠나는 것이 방법이라며 다문화가 한국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으로 인식된 이상 큰소리를 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다.

#### 4.4. 비존중에 따른 소외감: 정서적 빈곤감 이야기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은 ‘다문화’로 통한다. 굳이 다문화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문화라고 하면 다문화가정을 지칭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다문화로 통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이다. 참여자들이 ‘다문화’ 용어가 다문화가정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용어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사람’인 결혼이주여성들을 ‘문화’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전적 의미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다문화는 다양한 문

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다문화가정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는 ‘다문화 가족’을 부르는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차별은 피해자 중심으로 인정되고 있다. 차별피해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문화라고 부르는 것이 비인격적이며 비존중에 기인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문화 가족과 결혼이주여성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참여자들은 ‘단어’ 38회, ‘명칭’ 13회, ‘용어’를 10회 구사하였고, ‘다문화’를 300회, ‘사람’을 153회 ‘다양’ 17회, ‘문화’를 33회 구사하였다.

“다문화는 문화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왜 우리한테 다문화라 그래요?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람으로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강의하러 가도 우리보고 다문화 왔네. 이렇게 말해요.”(참여자 C)

참여자 C는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로 일하고 있다. 학교에서 강의하기도 하고 세미나, 포럼 등에도 많이 참석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에 무슨 일로 가든 ‘강사’, ‘선생님’이란 호칭보다 ‘다문화’로 더 많이 불린다고 한다. 한국 강사가 가면 당연히 ‘강사님’, ‘선생님’으로 부르지만, 결혼이주여성이 가면 호칭이 생략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한다. ‘다문화’라는 용어는 다양한 문화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 가정을 총칭하는 용어에 지나지 않으며, 그 용어에서 존중을 느낄 수 없다고 했다.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정 할 때는 그냥 우리를 부르는구나 했어요. 어느 날부터 다문화라고 우리를 불러요. 우리는 다문화 사람인데요, 사람이 아니라는 건가요? 우리를 가난한 나라에서 시집왔다고 막말하는 거 같아요.”(참여자 E, G, H, J, K, P)

참여자 K는 현재는 가족센터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아르바이트를 계속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그냥 다문화라고 부를 때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지금은 그러려니 한다고 한다. 그녀는 참여자 B와 C가 다문

화는 다양한 문화라고 단어 뜻을 풀이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 사람은 다문화 뜻이 무엇인지 관심 없다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 사람들이 뜻을 몰라서 다문화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뜻을 알고 있지만 다문화라고 부르니까 그냥 부르는 것이다. 아예 우리에게 관심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우리도 사람이고 인권이 있어요. 가난한 나라 사람이라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참여자 B, C, I, M, O)

참여자 B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자격지심이 있어서 다문화라고 부를 때 기분이 나쁘다거나 인간적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등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한국인들이 다문화라고 부를 때 표현되는 말투와 미묘한 분위기가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자 C는 다문화 관련 일을 하면서 자주 결혼이주여성들을 접하는 관계자들조차 일반인들이 다문화라고 부른다고 같이 부르는 것은 힘 빠지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다문화라는 주제로 일하는 사람들조차 결혼이주여성들의 마음 읽기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주민의 인권에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2000년도에는 다문화라는 말이 없었어요. 외국인이 조금 있었고, 시선이 좀 좋았던 시절이었죠. 전국적으로 ‘이주여성센터’가 운영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을 ‘이주여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2006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니까 ‘다문화가족’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냥 ‘다문화’라고 불러요. 다문화는 문화를 나타내는 말이지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부르는 유행하는 말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를 그냥 다문화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사람들이 우리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참여자 D)

참여자 D는 한국인들은 그저 유행을 따를 뿐 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문화라고 불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등에

대해서는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 결혼 이주를 한 똑같은 사람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이주여성’이었다가, ‘다문화 가족’이었다가 이제는 ‘다문화’가 된 상황이라며 한국인들이 결혼 이주를 한 자신들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르는 말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성’이나 ‘가족’ 등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었는데 이제는 다 생략되고 그냥 ‘다문화’일 뿐이라고 점점 결혼이주여성들의 위치가 낮아지는 것 같다고 했다.

“한국 사람들은 습관이에요. 아마도 지금 유행하는 말이 다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문화라고 불러요. 그냥 다문화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우리를 꼭 무시해서 부르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면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다문화는 다 다문화예요.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해도 시집 문화, 친정문화 달라서 다문화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만 그래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참여자 F, G, O)

참여자 G는 한국 사람들은 나쁜 습관이 있다고 했다. 한국 사람들도 다 해당하는데,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약한 사람에게 붙이는 것 같다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과 다문화 가족이 힘이 없어서 한국 사람들 편한 대로 부른다고 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사람’을 ‘문화’로 부르는 것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컸다. 이를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고 이제 사람이 아닌 문화로 취급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편하게 대하는 것과 마구 대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참여자들이 느끼는 것이 ‘마구 대하는 불편함’과 ‘인권침해’를 느낀다면 이는 문제의식을 지녀야 할 부분이다. 상대가 누구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인간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데, 참여자들이 다문화로 불리면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분명 다수 집단의 잘못이라고 본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 한국 사회는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이 융합된 사회이다. 또한 외국인들의 미디어 노출이 빈번해지고, 국제교류재단 등의 관련 단체를 통해 상호교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외국인 간의 접촉도 활발하다.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인 남편을 둔 아내이지만, 국적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인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 외국인도 아닌 '다문화'로 명명되는 것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차별의식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이 불필요한 차별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다문화 용어는 초기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가족을 대표하는 용어로 자리매김하였다. 이후에 다문화 수용성과 감수성 및 문화 다양성 등이 겹치면서 다문화 가족을 지칭하던 용어는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로 확장되었다. 그 과정에서 다문화 용어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가족이라는 큰 틀보다 아시아권에서 한국으로 결혼 이주를 한 여성들이 이룬 가정으로 범주화되어 다른 외국인 가정과 차별화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 가족에 담긴 언어의 이중성과 차별성 그리고 이질감 등을 인식하기에 이르렀고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다문화가정 용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기간이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 연구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 7개월 동안 17명을 대상으로 대면, 비대면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한국에 거주한 지 5년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녹취하여 R 프로그래밍으로 텍스트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다. 빈도수가 높은 어휘와 편견과 차별을 전제로 한 어휘를 묶어서 다문화 가정(다문화) 용어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용어는 다문화가정을 비하하고 지원과 혜택을 받는 용어로 다문화가정에 대해 편견을 갖도록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용어는 참여자들에게 첫째, 다문화가정이라는 어휘는 구분과 분류를 자행하는 어휘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에 산다는 자부심 부재, 둘째, 빈곤의 사회화로 인한 정책적으로 빈곤한 다문화가족에게 혜택이

지원된다고 인식하는 한국인과 지원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기준을 통해 한국인과 같은 기준의 혜택을 받는 것이지 특혜는 없다는 참여자들 간의 갈등 야기, 셋째, 소수자 중심의 용어 선택으로 인한 결혼이주여성 당사들의 가정 내에서 낮은 어머니로서의 위치, 넷째, 다문화로 통칭 되는 용어에서 비롯된 비 존중에 따른 소외감으로 정서적 빈곤감이 야기되었다.

첫째,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다문화 가족을 분리하고 한국인의 범주에서 배제함으로써 참여자들은 한국에 와서 사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정을 이룬 결혼이주여성들은 당연히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한국인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은 생각보다 심하였다. 또한 같은 입장인 외국인과 한국인의 혼인이지만 백인과의 혼인은 글로벌 가족이나 국제결혼가정이라고 다른 용어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 가족은 사회적 배려자로 낙인찍어, 한국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지니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둘째,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양날의 검이 되었다. 혜택이 필요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에서 빈곤한 집단이라는 낙인이 찍혔더라도 생계를 위해서는 이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문화 가족 지원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으며, 지원센터 또한 초기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을 돕거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모든 결혼이주여성’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은 혜택이 제한적이고 한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과 혜택을 받는 대상으로 낙인되어 차별적인 시선을 받고 있다.

셋째, 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는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어휘이다. 한국인 아버지가 존재하지만, 약자인 외국인 어머니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족이라고 명명하고 그 자녀들을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부르고 있다. 자녀들은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로 분류되었다. 또한 다문화 자녀는 엄마가 외국인이어서 한국 아이들처럼 올바르게 자라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이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문제집단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

들은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가정 내에서 입지가 약한 것이 현실이다.

넷째, 문화다양성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다문화는 다양한 문화라는 해석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족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족의 구성이라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는 외국인과 혼인한 한국인 가정을 모두 다문화 가족으로 부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과 혼인한 가정을 글로벌 가정, 국제결혼가정, 다문화가정 등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백인과 혼인한 가정은 글로벌 가정이나 국제결혼가정이라고 부르면서 아시아권 여성과 혼인한 가정은 다문화가정이라고 분류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도 아닌 다문화라고 부르면서 사람에게 대한 호칭이 아니라 문화로 불리는 것에 대해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며 소외당할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한국과 거리감을 두고 있다.

이같이 다문화가정 용어는 결혼이주여성들을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지니게 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자초한 문제이다.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아직 다문화사회를 받아들일 준비는 안 되어있다. 한국이 건강한 다문화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외국인과 혼인한 가정에 대한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다문화가정이라도 하더라고 비공식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보이는 용어의 차별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미디어가 발달하였고, 외국인들의 미디어 노출이 빈번한 상황이다. 따라서 같은 이주민들끼리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출신국에 따라,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르게 불리는 것은 사회적 갈등만 양성할 뿐이다.

다문화 가족 용어의 재정립은 1세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2세대인 자녀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소속감과 정체감의 혼돈을 겪지 않고, 온전한 한국인으로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엄마가 외국인이라고 자녀들이 외국인 취급을 받거나 온전한

지 못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한국 아이를 이방인처럼 주변화시키는 행위는 사회통합에도 저해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다문화가정’을 인지하게 되고, 다문화가정 자녀로 분리되고 구분되는 행위에 익숙해진다. 학교의 이러한 구분과 분리는 다문화가정 자녀뿐 아니라 일반학생들에게도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들이 성장하여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다문화가정 출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쉽게 바뀌기 어렵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와 다문화 용어의 확산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이 이룬 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고 범주화시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다문화’ 용어와 ‘다문화가정’ 용어가 구분될 수 있도록 용어 사용을 정확히 해야 한다. 다문화가 다문화가정을 나타내는 용어로 통용되는 상황에서 문화다양성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문화다양성이 다양한 문화로 해석되고 이것이 다문화로 불리고 있다. 또한 3차 다문화가족정책에 따라 다양한 문화 및 상호문화 존중에 관한 교육에서 다문화는 다양한 문화로 해석하고 다문화가정은 이처럼 2개 이상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혼인하여 이루어진 가정이라고 밝히면서 다문화 용어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다문화가정을 다문화로 통칭하는 상황에서 문화다양성의 다문화와 다문화가정의 다문화가 혼재되고, 사람을 문화를 나타내는 다문화로 칭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결혼이주여성이 분명히 한국사회의 구성원이고 한국 자녀의 부모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따라서 용어의 구분과 재정립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참여자들이 한국인들의 특징으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어려운 정책적 용어를 한국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따라 사용한다는 것이다. 다문화 가족이나 한부모가족 등도 그 한 예이다. 공무원과 같은 정책담당자가 사용할만한 용어를 일반인들이 생활용어처럼 사용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정책대상자를 위한 용어를 선정할 때 용어에 차별적 의미가 내포되어서는 안 된다. 일례로 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원’이

라는 어휘로 다문화가정은 빈곤하다는 사회적 시선을 낳았다. 다행히 올해부터 ‘가족센터’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러한 부작용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일반 국민에게 노출되는 정책안들에 용어에 차별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족 외에 어떤 용어가 적당할 것 같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대답은 용어가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그것은 현재 다문화 가족을 범주화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다문화 가족 용어도 시행 초기에는 차별과 구분 등의 편견이 없는 용어였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이 고착되면서 다문화는 오늘날과 같은 차별과 편견이 담긴 용어가 되었다. 어떠한 용어로 바뀌든지 이러한 과정은 반복될 것이라고 결혼이주여성들은 생각한다. 따라서 정책상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용어가 필요하다면 정책용어로만 사용하면 되지 일반화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차별은 당사자 중심의 인식이다. 다문화 가족이 다문화 용어를 불편하게 받아들인다면 이는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언어 또한 다른 힘을 받고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에 ‘다문화’ 용어는 내주어서 다문화 용어가 한국 사회에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 가족을 위한 용어는 편견과 차별이 생기지 않는 용어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다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다문화용어’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그러나 다문화 가족과 당사자인 결혼이주여성이 느끼는 편견과 차별 등은 다문화 용어로 인해 기인된 것이 상당하며,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문화 용어는 이미 사회적으로 차별과 편견을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요소를 차별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크며,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되어 분명한 문제를 내포한 ‘다문화’ 용어가 재정립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휘원(2006).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 20(2), 5-34.
- 국가인권위원회(2018).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 경기연구원(2018). 『‘문화다양성 적용에 따른 경기도 다문화정책 발전방안』, 경기연구원.
- 김선미(2011). “‘한국적’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의 성찰과 제언”. 『사회과교육』 50(4), 173-190.
- 김용국·김소희·김성하(2017). 『문화다양성 적용에 따른 경기도 다문화정책 발전방안』. 경기연구원.
- 김정희(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교육 자본화를 위한 다문화범부화와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질적 연구’”. 『다문화와 평화』13(1), 34-55.
- 김지윤·강충구·이의철(2014). 달한대한국: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과 정책 서울:아산정책연구원.
- 김효선(2015).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발전 방향 모색”. 『미래교육연구』5(2), 1-15.
- 류정아(2015). “문화다양성 개념과 도시정책적 함의”. 『세계와 도시』 11, 포커스.
- 문화체육관광부(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민가영(2011).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정책 수용과정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22(1), 88-104.
- 박건(2010). “차별이해 지평의 확장을 위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0(1), 256-292.
- 법무부(202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 서종남(2010). “한국사회의 다문화 관련 용어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16(2), 145-168.
- 송영빈(2019). “차별어, 차별표현은 무엇인가”.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89-94.
- 신은경·곽지영(2015). “장애인의 일상생활 취업준비 일자리에서 지각된 차별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5(3), 269-292.
- 심영성·김지영(2016). 국내 다문화 혐오증의 원인과 극복방안. 다문화와 디아스포라 연구, 8. pp.1-31.
- 여성가족부(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5).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정책 기본계획(안)』. 여성가족부.
- 유정석(2003). “캐나다-다문화주의 제도화의 산실”. 『민족연구』 11, 12-26.
- 윤인진(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72-103.
- 구본규(2015). 다문화는 어떻게 이주민 가족을 비하하는 말이 되었나?. 동북아 문화연구, 42, 5-34.
- 이영철(2010). “지적장애 용어의 변화와 최근 동향”. 『지적장애연구』 12(3), 1-24.
- 이혜경(2014). “국제이주·다문화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 15(1), 129-161.
- 장한업(2011). “한국 이민자 자녀와 관련된 용어 사용상의 문제점”. 『이중언어학』 46(0), 347-366.
- 정하나(2016). “다문화사회의 위협인식에 대한 영향용인”. 『한국사회정책』 23(2), 82-112.
- 조민지·임업(2017).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역의 관용도와 이주민이 인지하는 차별 정도의 관계”. 『국토계획』 52(2), 49-65.
- 조홍중·전리상(2017). “차별용어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달장애연구』 21(2), 23-44.
- 최대희(2018). “사회적 소수자로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과 인종주의”.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국내학술회의, 53-67.
- 홍기원(2009). “한국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공공관리학보』 23(3), 169-189.
- Antonovsky, A.(1960). The social meaning of discrimination. *Phylon* 21(1), 81-95.
- Krieger, N.(2000). Discrimination and health in Social Epidemiology, pp.36-75).

## 필자 소개

성 명 조숙정

소 속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주 소 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 154번길 29, 103동 1702호

전자우편 susuhao@naver.com

## | Abstract

# A Study on th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inherent in the term ‘Multicultural Family’

Jo, suk-jeong  
(Dong-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term “multicultural families” on married migrant women and to suggest the need for the term “multicultural families” to be reestablished.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November 15, 2020 to May 2021. The interview participants sampled 17 married migrant women with children who have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5 years. Text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R programming and visualized as a word cloud. Based on this, we analyzed the influence of multicultural family language on marriage migrant women.

According to the study, the term multicultural family is the first lack of pride in living in Korea in terms of classification and classification, the socialization of poverty, the need for benefits and support, and the low choice of minority-oriented terms.

Based on thi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will be made.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term for families married to foreigners. Secondly, the use of terms should be accurate so that the terms “multicultural” and “multicultural families” can be distinguished. Third, when the government selects policy terms,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and objectify the differentiation of terms.

**[Key words]** Multicultural, Multicultural Family, the Discrimination, Prejudice inherent, a division, multicultural terminology, a prejudiced term

투고일 2023. 02. 12 / 심사일 2023. 03. 09 / 심사완료일 2023. 03. 09